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중-1905호

佛敎新聞

성지순례 해외여행 맞춤여행 명산트레킹 항공권
또 다른 당신을 만나는 최적의 여행사
(주)마야투어 조승환 합장
www.mayatour.co.kr 02-722-9001 010-8443-900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5년 3월 5일 (2011년 / 단기 4344년 음력 2월1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700호 토

청소년포교 '새 전기'

포교원, 정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도입
어린이청소년委, 5월 시행…운영사찰 모집

조계종이 청소년법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계성스님, 포교원 포교부장)는 "조계종 포교원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등록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월28일 밝혔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란 만 14~25세 젊은이들의 다양한 자기성장 활동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2009년 현재 127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활동 참여와 동기 강화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오는 3월 둘째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약식을 맺고 성취포상제 중앙운영기관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종단 및 파라미타연합회 소속 사찰 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사회봉사 활동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8면

무엇보다 입시 대비와 학점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가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청소년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게 어린이청소년위원회의 설명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활동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등이다.

각각 어린이법회 도우미, 전통문화와 관련한 토론수업, 요가, 명상, 문화유산답사 등으로 접목하면 사찰에서도 소화하기 용이한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활동기간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 등의 포상을 받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입시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좀처럼 사찰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법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일선 사찰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경우 청소년과 대학생 계층포교에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사찰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키즈붓다(kidsbuddha.org)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메일(islby710@hanmail.net)과 우편 내방 접수 모두 가능하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오는 4월5일 운영사찰을 선정 발표하며, 선정된 운영사찰 포상담당관은 4월9일부터 10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리는 직무연수에 참석해야 한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민족성지' 진관사에서 '만세 함성'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스님)는 지난 1일 3·1절을 기념해 '태극기 등'을 제작하며 기념행사를 가졌다. 진관사는 지난해 초월스님이 머물며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일제강점기 제작된 태극기가 발견됐다. ▶관련기사 3면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무소유의 삶 따르자'

길상사서 법정스님 추모1주기 법회

무소유의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보여준 법정스님의 추모1주기 법회가 2월28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추모법회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인 길상사와 문도회 주관으로 생전 스님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봉행됐지만 스님을 애도하는 사부대중 1000여명이 설법전과 극락전을 가득 메웠다. 추모법회는 오전 11시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종사영반 헌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생전육성이 담긴 추모영상이 상영됐다. 추모법회에서 송광사방장 보성스님은 최근 길상사 주지사퇴를 둘러싼 불미스런 사태를 의식한 듯 출가수행자의 본문을 일깨우는 추모법문을 내렸다.

보성스님은 즉석법문을 통해 법정스님이 쌍계사에서 노장님(효봉스님)을 시봉할 때 반찬거리가 시원찮아 20리길을 걸어 고추장을 구해 오느라 늦자 점심공양을 하지 않은 일화를 소개하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은 세세생생 잊지 못할 거요. 출가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라며 할(喝)을 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은 언제나 사부대중의 사표이셨다"며 "하루빨리 환도중생하시어 저희들을 일깨우는 영혼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추도했다. 이어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스님이 법정스님의 진영을 모신 것을 찬(讚)했으며 한양대 음대 박경옥 교수가 추모헌음으로 '성불사의 밤' 연주와 평소 법정스님이 좋아했던 '청산은 나를 보고'라는 찬불가 합창이 헌음됐다.

법정스님 입적 1주기를 맞아 광주 무각사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여태동 기자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최병문 부산지사장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법정스님의 추모1주기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의 헌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결의 굳어지는 '민족문화수호 의지'

11일 직할교구 16일 쌍계사
17일 범어사 19일 통도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중앙종회도 108배 정진

교구본사 단위의 민족문화 수호대회가 이어지고 중앙종회도 적극 동참한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오는 3월11일 오후2시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직할교구 대중 결의대회'는 개최한다. 스님과 신도회, 신행단체 소속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직할교구가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법석으로 진행된다.

제13교구본사 쌍계사도 민족문화수호와 함께 종단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 동참을 선언한다. 쌍계사(주지 성조스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쌍계사 주지 성조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사부대중의 의지를 모을 계획이다.

제14교구 범어사(주지 정여스님)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부산 KBS 홀에서 민족문화수호 대법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조계종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법회에는 60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잘못된 문화유산 정책을 지적하고, 5대결사를 실천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스님)도 오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 경내에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방장 원명스님, 주지 정우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참여를 다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오는 8일 제186회 임시중앙종회 개원에 이어 조계사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108배를 올리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에 동참하고,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교구별, 계층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결성과 결의대회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영섭 박인탁 기자

국민 모금기관 '발돋움'

아름다운동행, 배분·모금위원회 신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계를 넘어 국민에게 인정받는 '범국민 모금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배분위원회와 모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2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배분위원회는 성금이 특정 분야나 지역, 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모금이 나눠지도록 심의하는 임무를 맡는다. 앞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500만원 이상 금액이나 단체에게 지원되는 1500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배분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승인된다.

또한 모금위원회는 모금활동 홍보 및 섭외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이와함께 모금위원회는 일반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위원회는 올 4월 중으로 10인 이내로 종교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여수 앞바다에서 생명결사 봉행 5면

社告

불교신문 지사 모집

1960년 창간해 한국불교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신문이 지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대구 경북지역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지역 조계종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마감 : 2011년 3월 15일(화)
- 전형절차 : 1차-서류, 2차-면접/합격자 개별통지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5층 불교신문 업무총괄팀
- 문의: 02)730-4488

불교신문사